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공지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7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0(통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 평화의 기도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빌4:6-7 ..... 인도자
♠ 교 독 문 .....	49. 시편108편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박영실 선생 II. 김인걸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15(통512). 내 주 되신 주를 ..... 다함께
성경봉독 .....	I. 눅10:36-37 ..... 이주희 학생 II. 막10:35-45 ..... 광권희 권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사랑을 몸에 익히고 ..... 김재홍 목사 II.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 김기석 목사

- 찬 양 ..... 460(통515). 뜻 없이 무릎 꿇는 ..... 다함께
-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사십시오. 욕심을 따라 악을 이루지 말고, 서로를 섬김으로 선을 이루며 사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나의 욕망을 부끄럼 없이 간구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탐욕의 세상을 벗어나 주님이 꿈꾸셨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동호회	요한1서 / 장영숙 전도사
	기도 : 이증자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황경순 집사	배동준 학생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윤성종 집사

7월	영접위원	방문성 박병구 윤성종 김정애 김윤정 이증자
	헌금위원	조병무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내 삶의 길라잡이

제주에 정착하기 전 사진을 찍으러 자주 왕래할 때에는 새벽밥을 먹고 서울 집을 나서 섬에 도착하면 한밤중이었다. 열 시가 넘으면 시외버스도 끊겼다. 시내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카메라를 둘러메고 나섰다. 비행기를 타면 시간이 절약되지만 나는 굳이 배편을 고집했다. 멀고도 힘든 길을 택한 건, 바닷길을 이용해 육지를 드나들던 제주 사람들의 애환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

주로 목포항이나 완도항, 부산항에서 제주행 여객선을 탔다. 그리고 2등 선실에서 노인, 장사꾼, 뺨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들을 통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발견했다. 황로에 따라 열두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지루한 항해에서 나는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보다는 제주도 사람들을, 젊은이보다는 노인들 틈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노인들은 살아 움직이는 제주도의 역사다. 그들을 통해 제주의 역사를 전해 들으며 제주 사람들의 삶을 어렵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다.

섬에 머무는 동안 나는 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서 무슨 얘기를 끄집어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그들의 역사를 아는 것이 맨 처음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성혈 신화에서 4.3사건까지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듣고 나뉘대로 제주 역사를 정리했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생각했다. 무엇을 찾아서 보고 느끼고 담아야 할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다.

처음부터 제주도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 가능한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우선 해안 마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중산간 마을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섬에 머무는 동안에는 시내보다 외딴 시골 노인들의 집에서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해결했다.

노인들은 옛날 그대로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갔다. 아궁이에 나무를 때서 밥을 짓고, 반찬도 날된장에 푸성귀나 젓갈이 전부다. 제주 사람들의 절약 정신은 유별나다. 가뭄이나 흉년에 적응하다 보니 절약이 몸에 배어있다. 책을 통해서만 알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토박이들처럼 부족한 삶을 온몸으로 겪었다.

노인들을 따라 들로 나갔다. 숨쉬기조차 버거운 바람 속에서 새벽부터 저녁 어스름까지 일하는 노인들 곁에서 온종일 밭일을 거들었다. 두툼한

외투를 입어도 한겨울 찬바람을 다 막아주지는 못했다. 점심도 찬밥 한 덩이가 전부다. 일 년 내내 받을 기어 다니며 일해도 궁색함을 면하기 힘들게 그들의 생활이었다. 서울에선 상상조차 못했던 삶이다.

그들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가치 없는지 깨달았다. 자신만만하게 세상과 삶에 대해 떠벌렸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는 말수가 적어졌다.

바닷가 마을에는 늙은 해녀들을 위해 할망 바다가 할당되어 있다. 젊은 해녀들은 깊은 바다에 들어가고 나이든 해녀들은 얕은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 위험 부담이 적은 곳은 할머니들을 위한 ‘할망 바당’인 셈이다. 틈만 나면 할망 바당에서 물질하는 늙은 해녀들을 지켜보았다. 팔순 노인이 거동조차 불편한 몸으로 바다에 들어갔다. 그들의 노동 앞에 나는 부끄러웠다. 나의 게으름을 반성하고 작은 시련에도 움츠러들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았다. ……

제주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무덤이 보이고 동자석도 보였다. 바람과 싸우며 척박한 땅에서 살아온 그들은 무엇을 꿈꾸는가. 유배의 땅에서 변방의 고달픈 삶을 극복하기 위해 토박이들은 ‘이어도’라는 유토피아를 꿈꾸었다. 그러면 이어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무덤을 이해하지 않고는 실마리를 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덤을 찍었다. 무덤을 찍다보니 장례식과 굿판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무덤을 찾아다니다 오름들을 만났다. 그렇게 나의 제주도 작업은 계속되었다.

작업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탄력이 붙는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순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확신했던 것들이 불확실로 변하면서 마음이 혼란 속에 빠져든다.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지만 어차피 혼자 가야할 길이기엔 스스로 마음을 다독인다. 그럴 때는 다시 들판으로 나가 노인들을 지켜본다. 시련을 견뎌낸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혼란스러움이 사라진다.

제주의 노인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자기 몫의 삶에 치열하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몫의 양식은 스스로 해결하는 노인들을 통해 나는 해답을 찾곤 했다. 노인들은 나에게 답을 가르쳐주었다. 내가 만난 노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크든 작든 한 덩어리의 한을 간직하고 있지만, 묵묵하게 자기 몫의 삶에 열중한다. 온갖 두려움과 불안, 유혹 따위를 극복하고 삶에 열중하는 섬의 노인들은 나의 이정표였다.

## 말의 힘

황인숙

기분 좋은 말을 생각해보자.

파랗다. / 하얗다.

깨끗하다. / 싱그럽다.

신선하다. / 짜릿하다.

후련하다.

기분 좋은 말을 소리내보자.

시원하다. / 달콤하다.

아늑하다. / 아이스크림.

얼음. / 바람.

아아아. / 사랑하는.

소중한. / 달린다.

비!

머릿속에 가득 기분 좋은 느낌표를 밟아보자.

느낌표들을 밟아보자.

만져보자. / 훑아보자.

깨물어보자. / 맞아보자.

터뜨려보자!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운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재흥 최희영 장영숙 윤정덕 구성실 한상의 정영선  
 김근종 정옥영 김순복 전영웅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숙화 김중수  
 이순정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문복순 최현선 배삼순 권호진  
 백묘현 서원금 오자영 윤미경 윤수진 이한림 김명희 홍순구 안홍숙  
 김성한 조영순 강순배 박용진 김용원 송의섭 김수진 김정애 양재성  
 임미심 전세종 김정민 곽새롬 최중훈 김금하 배제선 무명

### 월정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미순 김영순 김용태 박정숙 김종문 지명주 김중철  
 고영애 문금석 박옥순 서정순 김정섭 이소순 이인웅 오송경 정두리  
 이증자 김창경 이은정 노우종 김지윤 송동준 김진경 이재훈 배연선  
 이종현 정현희 K S 무명

### 감사헌금:

이건식 신영신 김순복 문복순 김 극 곽새롬 최중훈 김금하 무명4

녹색꿈헌금: 김기석 최경미 장원호 박성희

생일헌금: 김근종 정옥영 송임희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에루살렘	장 해 숙	박 성 실	정 두 리	장 해 숙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미 순	배 부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최 경 미	이 재 문	이 소 순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박 경 원	박 정 숙
갈 릴 리	안 정 숙	진 정 숙	박 옥 순	조 병 주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정 선 희	김 순 복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김 정 선	홍 복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권 미 정	최 숙 화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이 봉 옥	강 순 배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황 선 희	김 필 순
가 버 나 움	안 홍 숙	오 현 정	안 홍 숙	정 현 주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정 영 선	김 희 우
갈 라 디 아	유 경 순	김 수 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증 자	야 외
다 메 섹	박 해 경	최 영 혜	정 현 숙	최 영 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호회 : 오늘 오후 집회는 동호회입니다.
2. 부장회의 :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후 1시에 사랑방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3. 수양회 준비 회의 : 오후 1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4. 수요집회 : 7월 수요 집회는 장영숙 전도사가 '요한1서'를 강의합니다.
5. 수양회 참가 신청 : 각 선교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 선교회장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앙실천 : 아름다운 이야기꽃이 피는 수양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식당 봉사 : 가버나움 속 (다음 주 : 가버나움 속)

\* 설거지 봉사 : 박용진 김용원 정희은 (다음 주 : 남창모 전충길 김세진)

\* 새교우 : 윤수연 (청년부)

###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안내

1.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3. 기도 중에는 출입을 삼갑니다.
4. 휴대 전화는 예배 시작 전에 끕니다.
5. 음식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